항해일지

meritz 메리츠증권

2026. 8. 27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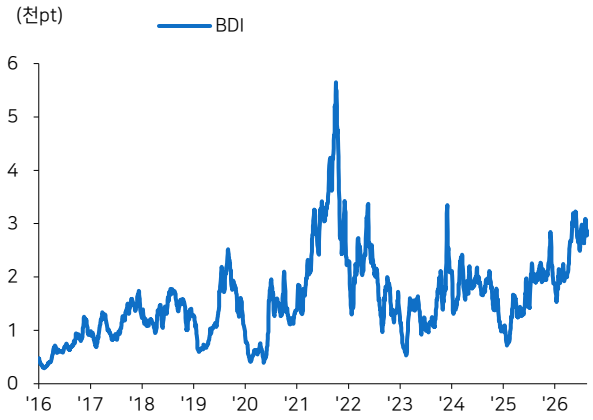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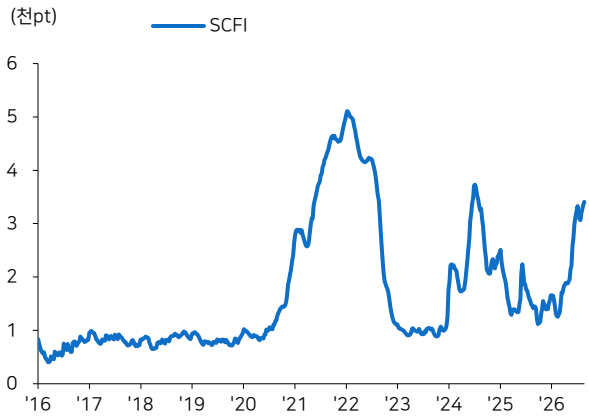
신조선가 186.3p (+0.6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1.0달러 (+6.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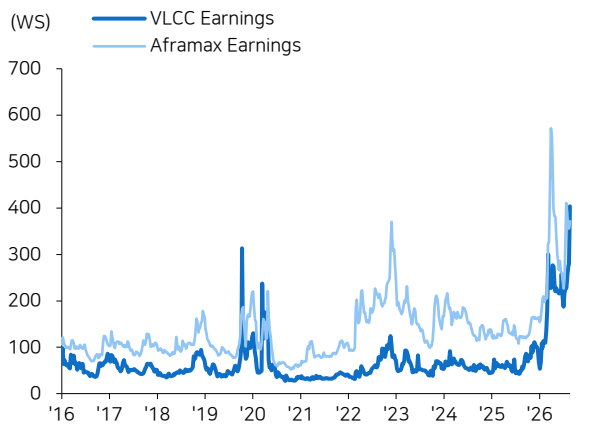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882.0p (+4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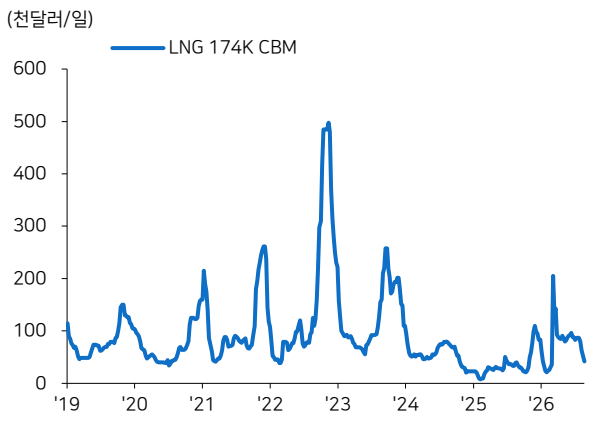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409.6 (+54.4 WoW)



VLCC Spot Rate 403.9WS (+124.6p WoW)



LNG Spot 운임 42.0천달러 (-11.3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 현대중공업, 기니 대형 금광 40MW 발전설비 수주…'힘센엔진' 육상시장 확대 (프레스나인) https://zrr.kr/nEYhgy

HD현대중공업이 서아프리카 기니 방칸(Bankan) 금광 프로젝트의 40MW 발전소 공급사로 선정되며, 힘센(HiMSEN) 엔진 기반 육상 발전사업의 아프리카 광산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알려짐. 방칸 프로젝트는 연간 약 25만 온스의 금을 생산하는 대형 광산 개발사업으로, HD현대중공업은 광산 건설에 앞서 장기 납기 핵심 설비인 발전소를 공급하고, 전기 · 계장 설계는 ECG엔지니어링이 담당한다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은 앞서 기니 키니에로 금광에도 32MW 규모 힘센 발전설비를 공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와 광산 등 육상 전력 인프라를 중심으로 힘센 엔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됨.

HD 현대 'LNG 화물창' 문제 해결할까… 세계 첫 '3-탱크' LNG 선 상용화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sX0y3I

HD현대중공업이 선체 크기는 유지하면서 화물창 구조를 혁신해 적재량을 174,000㎥에서 177,000㎥로 늘린 차세대 LNG운반선 설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보도됨. 프랑스 GTT, 싱가포르 BW LNG와 공동 개발한 3-화물창 설계는 화물창을 4개에서 3개로 줄여 단열 공간을 최소화하고, 자연 증발률(BOR)과 재액화 장치 전력 소모를 낮춰 운송 효율과 탄소 저감 효과를 동시에 확보했다고 전해짐. 해당 설계는 DNV 승인을 완료했으며, BW LNG가 발주한 4척에 적용돼 HD현대삼호에서 건조 후 2028년 4분기부터 2029년 3분기까지 순차 인도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이래서 한화가 군침을…오스탈 USA, 美 해군 최초 중형 보조 부유식 드라이 도크 공개 (더구루) https://zrr.kr/f108gz

한화가 인수를 추진 중인 Austal USA가 미 해군을 위해 40년 만에 첫 중형 보조 부유식 드라이 도크(AFDM 15)를 건조 · 진수하며, 함정 유지보수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고 보도됨. 해당 드라이 도크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등 주요 전투함 정비를 지원하는 시설로, 내년 1분기 미 해군에 최종 인도될 예정으로 전해짐. 한화는 필리조선소에 이어 Austal USA 인수를 추진하며 미국 내 함정 건조와 MRO 거점을 확대하고, 현지 방산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으로 알려짐.

US-listed Seanergy linked to fresh newcastlemax order at Hengli Heavy (TradeWinds) https://zrr.kr/PvopNE

그리스 선사 Seanergy Maritime이 중국 Hengli Heavy Industry에 211,000DWT급 뉴캐슬맥스 1척을 추가 발주하며 케이프사이즈 중심의 선대 확대를 이어간다고 보도됨. 신조선은 2029년 인도 예정이며, 기존 건조 중인 케이프사이즈 3척을 포함할 경우 Seanergy는 최근 10개월간 중국 · 일본 조선소에 총 8척의 벌크선을 발주했다고 전해짐. Seanergy는 지난해 10월 이후 신조선 발주와 중고선 매입에 약 6억5,000만달러를 투입하며, 장기 벌크선 수요 증가에 대응한 뉴캐슬맥스 선대 확장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짐.

한화오션, 제주대와 친환경 해양 MRO 기술개발 협력 (세계일보) https://zrr.kr/tP1ATu

한화오션이 제주대학교와 친환경 해양 MRO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남에서 축적한 선박 유지 · 보수 · 정비(MRO) 역량을 제주로 확대하는 지역 거점 전략을 추진한다고 보도됨. 양측은 친환경 선박과 해상풍력 분야 정비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제주 해군 MRO 민영화 시범사업과 연계해 연구 · 기술교류 및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에 협력할 계획으로 전해짐. 한화오션은 거제사업장의 정비 기술과 공급망을 기반으로 제주 현지와 실시간 원격 협업 체계를 구축해 근접지원형 MRO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짐.

Hanwha becomes a shipowner that won't compete with shipowners (TradeWinds) https://zrr.kr/yrBEgk

Hanwha Shipping이 첫 VLCC Elandra K2를 인도받으며 본격적인 선주 사업에 진출했으며, 경쟁 선사가 아닌 선주 · 용선사 · 금융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도됨. 첫 선박은 Vitol과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했으며, Hanwha Shipping은 VLCC · LNG선뿐 아니라 미국 Hanwha Philly Shipyard에 LNG선 2척과 MR탱커 10척을 발주하는 등 총 17척의 신조 선대를 확보했다고 전해짐. 회사는 미국 조선업 재건 정책에 의존하기보다 노후 Jones Act 선대 교체 수요 등 시장 기반 사업성을 중심으로 미국 조선소와 한국 조선 역량을 연계하는 장기 전략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